



에스티팜 (237690)

LNP 기술 도입으로 mRNA 백신 레시피 확보

◎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통해 검증 받은 LNP 기술 확보로 자체 개발 백신 개발 가능성 높아짐

>> 4/8일 mRNA 백신 개발/상업화를 위해 Genevant(Arbutus로부터 LNP 기술 양도 받음)로부터 LNP 기술을 아시아 12개국에 한하여 총 \$133.8mn(약 1,496억원)에 기술 도입함.

¶ LNP란 지질나노입자(Liquid Nanoparticle, LNP)의 약자로 mRNA가 분자량이 크고 전하를 띄고 있어 세포 막을 통과하기가 어렵고, 몸 속 분해효소로 인하여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LNP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Genevant의 LNP 플랫폼 기술은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엔텍이 사용하여 코로나19 백신에 상용화 시킨 기술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서 이미 검증 받았음. LNP 기술을 확보하며, 자체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음.

>> 아시아 12개국에 한정되어 있으나, 백신 확보 전쟁에서 특히 mRNA 백신 보급이 뒤쳐져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도 추후 글로벌 mRNA 백신 수준의 백신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당사는 상반기 중 mRNA 대량생산 GMP 공장을 증설하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 기준 연 240만 도즈의 원료 생산 규모임. 연간 1억 2,000만 도즈 규모 설비 증설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1년 25억 도즈 공급 목표 중이며, '21년 가이던스 \$15bn(약 16.7조원)

◎ 자체 개발 신약 성과 나온다면, 기업 가치 재고 필요

>>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등의 원료 공급 관련 기업가치만 산정되고 있으나, 자체 개발 mRNA 백신 임상 진입 혹은 STP 1002(항암제, 1상 중)와 STP 0404(AIDS 치료제, 1상 중)의 임상 성과 도출시 신약 가치 재평가 될 것으로 전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